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요한복음 6:3-13)

2025년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손이 늘 함께 하는 복되고 아호화를 경유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이이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며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이미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항상 전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때론 어린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심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예수께서 그 어린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나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중에 하례해 주신 다음 세례인 어린 성령들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쉼과 가정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보리밭 오렌지 물고기 12마리 도사복의 주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사복의 주인이 바로 ‘어린 한 아이(9월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자들과 아이들)입니다. 포함한면 이 넓은 빈들에서 모여 있는 숫자는 2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리밭과 물고기를 낚을 때마다 계속해서도 양파는 5명 2자 들을 위해서 결정하면서 그 장소는 대형 기차와 호텔이 도사되기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가운데 주인공을 한 번밖에 보지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신이 아니고 있는 작은 한 도사복을 재자 인도에게 나인 것인 다.** 이 아이는 모두가 배고파하는 상황속에서 일흔둘자 신의 도사복을 숨겨 놓고 혼자서 조용히 조금씩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만 명) 낚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가 이 아이를 주목했을까요? 그러나 **이 아이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피아디란은 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주 상하고 남다른 의식) 있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통 아이로 표현할 때 피아디온을 표현을 합니다. 일찍인 시고를 하는 말 그대로 아이입니다. 그러나 피아디란은 다른 표현입니다. 마치 다섯 이 어린 목동 소녀(9)였을 때 그를 가르켜 피아디란(일곱)이라고 부르고 같이 일반(아이)와는 무관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역시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주인공으로 세워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홉째 피아디란은과 같이 주상하고 순전한 그러나 빈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과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일말과 안드레는 비록 주님의 제자였지만 개산 이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가정의 사건에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진하게 드러난 자아 아래에 모든 축복의 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천의 주재인(아이)와 아자를 재해물고 숨겨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이(아이)들에게는 나내(신)을 갠하 나이다. 용서(아이)하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11:25-26)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아 라이의(피아디란)은 스페인으로 사기와 재능과 물질과 은사들을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 남의 손이 함께 하는 복된(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 성령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끄럽습니다.

2025년 포어

“사람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내 제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사랑의 5대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블레스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수요종교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 치 부		창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4 선 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브미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 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하스패닉	이호성 목사 (646)549-6043
영 아 회 중	홀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티모시 투를름 목사 (646)467-2675
양 육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만 전도사 (917)533-9511
새 기 축 부	최순성 목사(성) 박수진 전도사(부)	시나이지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령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독교TV(태임워너 케이블 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만양송)
토요일 오전 11시(개양송)

2025년 5월 11일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3부 예배 12:00pm
드림 워십	글로벌 워십	블레스 워십
인도: 이재환 목사	인도: 김성준 목사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고백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스 찬양팀
*성서구독 Responsive Reading	제98편 ‘아버이주일’	기도
*신앙고백 Credo/Nicene Creed	사도신경	공동체 속의 영양
찬송 Hymn	새72장(통304) ‘아버이 날은 사랑’ Precious Love: the Love of Mother	성경봉독
기도	김준업 전로 (Elder Jeon Yoo Kim)	*봉헌
*성경봉독 Scripture	마가복음(Mark) 9:11	설교
*봉헌 Offering	새723장(통348) ‘나의 생명의 노래’ (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영광함과 기쁨을 따르는 공동체” 최순성 목사
찬양 Anthem	글로벌이 찬양대 ‘아버이와 사랑’	찬양
설교 Preaching	“다시 들리는 아버지의 축복의 음성” The Echoing Voice of the Father's Blessing	최도
*찬송 Hymn	새728장(통336) ‘여라 해 동안 주 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최순성 목사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속의 Affirmations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십시오 / Stand if able)